

■ 쿠웨이트-이라크 국경무역 실태

□ 치안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행 트럭은 계속 운행

- 이라크내 치안불안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이라크 국경무역은 하루 500 여대의 트럭이 국경을 넘나들 정도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같은 트럭운행 숫자는 비록 작년 전쟁이 끝난 이후 운행숫자인 3,000 여대에 비해서는 현격히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이라크내 치안악화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로 판단되고 있음.
- 양국 세관들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내 운송회사들도 그 동안 같고 닮은 나뭇대로의 노하우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쿠웨이트 운송회사들은 요르단, 사우디 등 여타 이라크 인접국의 동종업체보다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쿠웨이트 굴지의 운송회사인 S 사의 영업과장인 사비르씨에 의하면 현재 “쿠웨이트 - 바스라 - 바그다드” 사이 구간이 사람들의 잦은 이용, 즉 OPEN 된 구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어 요르단 및 사우디 업체도 자사와 업무제휴를 요청할 정도라고 귀뜸하고 있음.
- 지난달 극도의 치안불안시에는 쿠웨이트 트럭운전자들이 이라크행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운송회사들을 곤경에 빠뜨린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나뭇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영업에 임하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S 운송회사의 경우에는 이라크내에 자체 경호팀은 물론 이라크차량 번호판을 붙인 장비 보유, 요소요소에 지사설치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 사비르씨에 의하면, 이라크로 운송될 화물을 실은 쿠웨이트 운전사와 차량은 국경을 넘자마자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YARD 에서 이라크 운전사 및 차량으로 바꾼 후 자사 경호팀의 호위하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것임.
- 또한 동사는 쿠웨이트 항구 근처에 자사 소유 컨테이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라크로 이동할 물건을 싣기 위한 것이라고 함. 즉, 그 동안 이라크로 들어간 컨테이너들이 약탈로 인해 되돌아 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Shipping Co. 입장에서는 자사 컨테이너가 이라크로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물건을 주문한 화주입장에서도 컨테이너 통채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약탈로부터 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컨테이너 통채 전달을 요청하다 보니 이들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회사가 아예 컨테이너를 보유하게 된 것이라 함.
- 목적지가 이라크인 화물은 쿠웨이트측 관세부과를 면하기 위해 Kuwait Free Trade Zone 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며, 지난 4.15 일부로 부과되고 있는 5%의 이라크측 관세도 화물이 CPA 계약물건인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함.
- 운송요금은 상황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단, 무게가 25 톤을 초과해서는 안됨)으로 바스라까지는 약 2,000 불, 바그다드까지는 약

3,750 불임. 동 비용에는 항구비용, 경호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불조건은 계약시 50%, 사업수행 후 50% 임.

- 참고로 국경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물자들은 미군을 위한 식품 및 석유를 비롯하여 시멘트, 목재, 중고차, 중고가구, 가건물(Pre-fab House) 등 전후 복구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경 통과시간은 안전을 감안하여 오전 7 시에서 오후 5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운송회사들은 오전 일찍 국경통과를 선호하고 있음.

□ 세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경세관 부대시설 민영화 추진

- 쿠웨이트 정부는 이라크와의 교역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경세관의 각종 부대시설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관련업체를 물색 중에 있음. 이미 항구내의 일부 세관 부대시설 업무를 민영화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부로서는 국경세관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입찰을 위한 PQ 시행결과 14 개사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낙찰업체는 보안은 물론 세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적인 책임을 갖고 향후 25 년간 정부에 매년 2 백만 디나르(6.8 백만불)를 지불하며, 계약 종료 후에는 빌딩, 기자재 등 관련시설 일체를 정부에 기증케 되어있는 조건이나 향후 이라크와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은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민영화를 통한 개선된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경지역 자유무역지대도 늦게나마 진척중

- 한편, 쿠웨이트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작년 전쟁 종료 직후 발빠르게 움직인 국경지역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설치 계획은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관련업계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엔 보세창고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계획안에 의하면, 우선 1 차적으로 이라크 국경부근 압달리 지역에 24 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보세창고를 BOT 방식으로 설립하고, 2 단계로 이 지역에 제조업체 입주 및 상품전시장 건립 등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 동 계획안은 다수의 쿠웨이트 기업인들이 이라크시장 선점의 일환으로 정부측에 건의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라크와의 교역재개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바 있음.

(문의처 : 쿠웨이트무역관 김유정 kyj@kotra.or.kr)